

# 공급망 대전환 쇼크 시나리오 분석 및 모니터링 보고서

## 목차

-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 모니터링할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 사전 감지(Yellow)·임박(Red) 뉴스 키워드
-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 신한은행 영향 분석 ('수익성'·'유동성')
-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 1. 시나리오 설명 및 전개 흐름

본 섹션은 "공급망 대전환 쇼크" 시나리오의 핵심 가정, 발생 배경, 그리고 단계별 파급 경로를 요약하여 제시합니다. 이는 미-중 갈등 심화 속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며 발생하는 복합적인 경제 및 금융 충격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Scenario_ID	Scenario_Name	Description
SC002	공급망 대전환 쇼크 (The Great Supply Chain Restructuring Shock)	<p><b>[배경]</b>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De-risking)를 위해, 글로벌 핵심 기술 기업(반도체, 전기차 등)들이 정부 규제 이전에 주주 및 이사회 압력으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패닉에 가까운 탈출(Panic-like Exodus)' 형태로 중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시나리오.</p> <p><b>[1단계: 자산 좌초 및 중국발 디플레이션]</b> 특정 글로벌 대기업의 탈중국 선언이 산업 내 '죄수의</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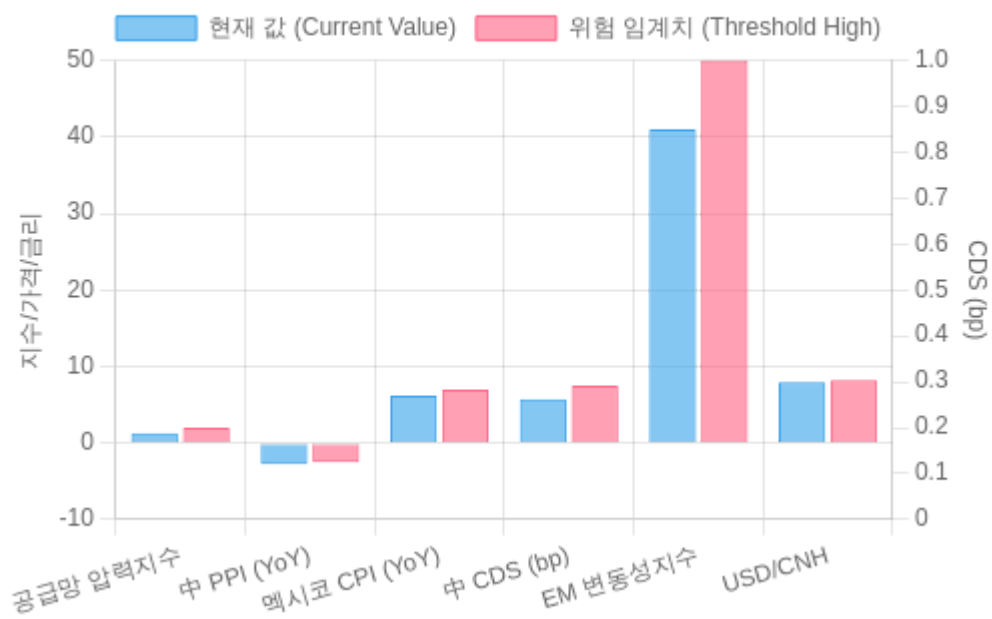
Scenario_ID	Scenario_Name	Description
		<p>딜레마'를 촉발하여 경쟁 기업들의 연쇄적인 탈중국 선언으로 이어짐. 중국 내에 남겨진 최첨단 생산설비, R&amp;D 센터, 부동산 등은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좌초 자산(Stranded Assets)'으로 전락. 관련 기업들은 재무제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자산 상각 (Impairment Loss)을 반영하며 주가 폭락 및 신용등급 강등에 직면. 동시에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 급감, 자본 유출 가속화, 위안화 가치 급락, 부동산 시장 침체 심화 등 강력한 디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함.</p> <p><b>[2단계: 병목 인플레이션 및 신흥국 긴축]</b></p> <p>생산기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한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발생. 공장 부지, 숙련된 엔지니어, 안정적인 전력 및 물류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단기간에 폭증하며 공급을 초과, 자산 가격과 임금이 급등하는 극심한 '병목 인플레이션(Bottleneck Inflation)'이 발생. 이들 국가는 자국 통화가치 초기 강세 이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 이는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세를 급격히 둔화시키고 부채 부담을 가중시켜 또 다른 금융 불안을 야기함.</p> <p><b>[3단계: 글로벌 금융 혼란 및 정책 딜레마]</b></p> <p>글로벌 금융시장은 '중국발 디플레이션' 공포와 '신흥국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혼재된 극심한 혼란 상태에 빠짐. 연준(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은 이러한 상충된 시그널 앞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하는 '정책 딜레마(Policy Dilemma)'에 직면. 이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대화하고, 결국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됨. 투자자들은 방향성을 잃고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며, 특히 한국과 같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자체 부채가 많은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됨.</p>

## 2. 모니터링할 시장 지표 (Bloomberg 데이터)

본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과 진행 단계를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실물경제 및 금융 지표 목록입니다. 각 지표의 현재 수준과 위험 임계치를 비교하여 시나리오의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Indicator_ID	Indicator_Name	Bloomberg_Ticker	Data_Frequency	Threshold
IND001	뉴욕 연은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GSCPI Index	Monthly	1.0
IND002	중국 생산자물가 지수 (YoY)	CNPPIYOY Index	Monthly	-4.0%
IND003	멕시코 소비자물가지수 (YoY)	MXCPIYOY Index	Monthly	5.5%
IND004	중국 5년물 국채 CDS 프리미엄	CCHN5 Curncy	Daily	100bp
IND005	CBOE 신흥시장 ETF 변동성 지수	VXEEM Index	Daily	35.0
IND006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역외)	USDCNH Curncy	Daily	7.80

주요 모니터링 지표 현황 (현재 값 vs 위험 임계치)



3. 사전 감지(Yellow)·임박(Red) 뉴스 키워드

뉴스 및 시장 보고서에서 특정 키워드의 빈도와 맥락을 모니터링함으로써 시나리오의 진행 상황을 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전 감지(Yellow)' 단계는 구조적 변화의 시작을, '임박(Red)' 단계는 위기의 가시화를 의미합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0-1)
SC002	IND001	supply chain restructuring (공급망 재편)	Yellow	0.7
SC002	IND001	friend-shoring (프렌드쇼어링)	Yellow	0.8
SC002	IND004	geopolitical uncertainty (지정학적 불확실성)	Yellow	0.6
SC002	IND001	de-risking (디리스크잉)	Yellow	0.8

Scenario_ID	Indicator_ID	Keyword	Phase	Weight(0-1)
SC002	IND002	impairment loss (자산 손상차손)	Red	0.9
SC002	IND003	bottleneck inflation (병목 인플레이션)	Red	0.9
SC002	IND005	capital flight from China (중국 자본 유출)	Red	0.8
SC002	IND006	panic-like exodus (패닉 탈출)	Red	0.9
SC002	IND002	stranded assets (좌초 자산)	Red	0.9

#### 4. 시나리오-지표 연계 정보

각 모니터링 지표가 시나리오 전개에 미치는 영향력(가중치), 위험도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시나리오 발생 시 예상되는 변동폭을 정량화하여 분석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지표의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주시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Scenario_ID	Indicator_ID	Weight	Correlation_Coeff	Volatility_Impact(%)
SC002	IND001	0.25	0.75	30.0
SC002	IND002	0.25	-0.80	45.0
SC002	IND003	0.20	0.70	35.0
SC002	IND004	0.10	0.85	150.0

Scenario_ID	Indicator_ID	Weight	Correlation_Coeff	Volatility_Impact(%)
SC002	IND005	0.15	0.90	220.0
SC002	IND006	0.05	0.65	15.0

## 5. 신한은행 영향 분석 (‘수익성’·‘유동성’)

"공급망 대전환 쇼크"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신한은행의 핵심 재무 건전성 지표인 수익성과 유동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위험 수준을 5단계로 평가합니다.

Metric_ID	Metric_Name	Baseline_Value	Current_Value	Threshold_Level	
BM001	NIM(%)	1.60%	1.45%	1.30%	
BM002	대손비용률 (%)	0.25%	0.40%	0.70%	
BM003	LCR(%)	105.0%	101.5%	95.0%	
BM004	외화 LCR(%)	90.0%	82.0%	70.0%	

## 6. 종합 발생 가능성 및 대응 권고

앞선 정량적 지표 분석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의 최종 발생 가능성과 위험 수준을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한은행이 선제적으로 실행해야 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포트폴리오, NIM 방어, 자금조달 및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 제시합니다.

항목	내용
Overall Probability(%)	65.9% (지표별 Probability와 Weight를 가중평균하여 산출)
Overall Risk Level	4단계 (심각)
대응 권고 (신한은행)	<p><b>1. 포트폴리오 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익스포저 관리)</b>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반도체,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등) 및 중국 내 생산/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 여신에 대한 익스포저를 선제적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화하여 잠재 부실 위험을 조기에 식별.</li> <li>• <b>(기회 발굴)</b> 공급망 재편의 수혜국(멕시코, 인도, 베트남, 동유럽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신규 진출하는 국내 우량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IB, PF, 무역금융 등)을 확대. 단, 해당 국가의 '병목 인플레이션' 및 정치/제도적 리스크를 감안하여 국가별/산업별 한도를 설정하고 신용평가를 강화.</li> </ul> <p><b>2. NIM 방어 전략:</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리 리스크 관리)</b> 글로벌 정책 딜레마로 인한 장단기 금리 변동성 확대 및 비정상적 커브 움직임에 대비, ALM(자산부채종합관리) 전략을 정교화. 금리 스왑(IRS), 통화 스왑(CRS) 등 파생상품을 활용한 적극적인 헤지 전략을 구사하여 금리 변동에 따른 이익 감소를 최소화.</li> <li>• <b>(수익원 다변화)</b> 이자이익의 변동성이 커지는 환경에 대비하여, WM(자산관리), IB, 글로벌 부문의 수수료 기반 비이자이익 비중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 특히, 공급망 재편과 관련된 기업 고객에게 M&amp;A 자문, 외환 리스크 관리 솔루션 등을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li> </ul> <p><b>3. 자금조달 및 유동성 관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화 유동성 확보)</b> 시나리오의 핵심 리스크인 '외화 LCR 급락'에 대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 글로벌 자본 유출 및 달러 강세 심화에 대비하여 장기 외화채권(예: 쉐거루본드, 포모사본드 등) 발행, 글로벌</li> </ul>

항목	내용
	<p>은행과의 커미티드 라인(Committed Line) 신규 확보 및 증액 등 안정적인 외화 조달 수단을 선제적으로 다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기대응 계획)</b> 시나리오 발생 시 급격한 원화 약세 및 외화자금시장 경색에 대비한 비상 자금조달 계획(Contingency Funding Plan)을 실제 상황에 맞춰 재점검하고, 고유동성자산(HQLA)을 규제 수준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하여 위기 시 대응 능력을 극대화.</li> </ul>